고입

# 2014년도 제 2 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 친구가 책을 읽었다.

① 바닷물이 파랗다.
② 아기의 손이 작다.
③ 조카가 매우 예쁘다.
④ 동생이 밥을 먹는다.

**2.**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말끼리 묶은 것은?

> 다른 나라에서 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① 버스, 컴퓨터
② 몸짱, 공주병
③ 미리내, 시나브로
④ 방가방가, 안냐세여

**3.**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로, 우리말 중에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가 많다.

① 네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② 동생은 올해부터 오락실에 발을 끊었다.
③ 나는 흙장난으로 더러워진 손을 씻었다.
④ 영어를 공부한 지 1년 만에 귀가 뚫렸다.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어 형성법에 해당하는 것은?

> '넓이'는 '넓-'이라는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처럼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① 베개
② 손발
③ 아침
④ 하늘

**5.**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① 민수야, 선생님이 오시래.
② 학생이 다 오지는 않았다.
③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다.
④ 나는 피아노와 노래를 부른다.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는?

> **표준 발음법**
> 제17항 |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① 국민
② 놓다
③ 견디다
④ 해돋이

**7.** 다음은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표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제목** | 대중문화를 이끌 팬 클럽 문화 |
| **처음** | ㉠ 팬 클럽 문화가 생겨난 원인 |
| **중간** | • ㉡ 팬 클럽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br>– 건전한 비판을 거부하고 경쟁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로 피해를 줌.<br>– 기획사들이 팬 클럽을 상업적으로 이용함.<br>• 팬 클럽 문화의 긍정적인 모습<br>– ㉢ 세대 간에 갈등을 일으킴.<br>–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개함.<br>– 연예인과 함께 봉사 활동, 기부 문화를 확산함. |
| **끝** | ㉣ 팬 클럽 문화가 나아갈 길 |

① ㉠
② ㉡
③ ㉢
④ ㉣

**8.**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 저는 1학년 2반 ○○○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요즘 너무 덥습니다. 지난주부터 춘추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으로 정해져서 하복을 입고 등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 하복과 춘추복의 혼용 기간을 두신 것은 좋습니다만, 기간도 너무 짧고 그나마도 그 기간이 끝나면 더위를 많이 타는 저 같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춘추복을 입어야만 해서 힘듭니다.
> 그러니까 혼용 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절과 상관없이 자기 체질에 맞게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해 주시든가, 교복 혼용 기간을 더 늘려서 하복을 더 오래 입고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 ○○○○년 ○월 ○일
> ○○중학교 ○○○ 올림

① 새로운 하복 구매
② 교복의 디자인 변경
③ 교복 혼용 기간 연장
④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③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④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10.** [ ] 안의 시어 중,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① 하늘 ② 바다 ③ 손님 ④ 은쟁반

**11.** ㉠에 쓰인 심상과 같은 것은?

① 깔깔 소리 들리면 ② 붉은 산수유 열매
③ 밥 짓는 냄새 나면 ④ 가을바람은 산들바람

**12.** 서구화된 식생활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요즈음 우리네 식탁엔 점차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 걸어가면서 아침을 먹고, 차에 흔들리면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바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인가? 아니면, 개척 시대 미국 이주민의 생활이 부러워 그것을 흉내 내고 싶어서인가? 즉석요리, 즉석식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내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생선은 굽고, 닭고기는 튀겨야 맛이 있다고 성화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나는 그 반대 입장에 서서 국물이 있는 것으로 입맛을 챙기려 하니, 아내는 늘 지혜롭게 식탁을 꾸려 갈 수밖에 없다. 기다릴 줄을 모르고, 자기 욕심과 자기주장이 통할 때까지 고집을 피워 대는 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런 성격이 서구화된 식탁 문화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커진다.

- 문형동, 「국물 이야기」 -

① 긍정적 ② 비판적 ③ 수용적 ④ 예찬적

**13.**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할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제에 어긋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② 듣는 이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를 제시한다.
③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자료를 이용한다.
④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이용한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읽기는 '글쓴이와 읽는 이의 생각과 느낌의 만남'이라고 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답은 바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동시에 읽는 이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

첫째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글 속에 담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글쓴이의 글쓰기 의도나 목적도 파악해야 한다.

[A]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의학이나 법률, 또는 과학 서적과 같이 정보성이 강한 글은 글 속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설득적 성격이 강한 광고문이나 주장하는 글은 그 속에 담긴 정보와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인 글은 그 안에 담긴 가치와 감동을 느끼며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읽는 이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읽는 이는 글쓴이가 언급하지 않고 남겨 둔 내용까지 추리하고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영환, 「읽기란 무엇인가」 -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읽는 이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다.
②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③ 정서 표현의 글은 가치와 감동을 느끼며 읽으려고 노력한다.
④ 글쓴이가 언급하지 않고 남겨 둔 내용은 추측하거나 상상하지 않는다.

**15.** [A]에 사용된 주된 내용 전개 방법은?

① 묘사 ② 예시 ③ 인과 ④ 정의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동이 점점 자라 여덟 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공(公)은 길동을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길동의 출생이 천하여, 길동이 '아버지'나 '형' 하고 부를 때마다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어느 가을 9월 보름께가 되자, 달빛이 밝게 비치고 맑은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兵法)이라도 익혀, 대장인(大將印)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이 한 몸 적막하여,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뜰에 내려와 검술을 익히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이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하였다.

"소인(小人)이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며 말하였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길동이 절하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정기(精氣)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서 길러 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 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 허균, 「홍길동전」 -

* 공맹 : 공자와 맹자, 또는 그들의 학문.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 소설이다.
②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사회 소설이다.
③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한문 소설이다.
④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17.** '길동'이 갈등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출생이 천하여 호부호형하지 못한다.
② 검술 실력이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한다.
③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④ 글 읽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

**18.** 윗글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이 아닌 것은?

① 신분의 차별이 있었다.
② 문인보다 무인이 대우를 받았다.
③ 종을 거느리고 사는 집이 있었다.
④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일요일날, 그렇지요, 그것은 유치원 방학(放學)하고 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당에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랑에서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외삼촌도 나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나와 단둘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옥희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니다.

"응,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나는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좀 부려 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고 천장만 바라보시더니,

[A] "옥희야, 옥희 아버지는 옥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옥희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옥희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옥희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옥희 어머니는 화냥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옥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옥희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되면 옥희는 언제나 손가락질받고. 옥희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 데 못 가고, 옥희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 그까짓 화냥년의 딸.'이라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19.**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외삼촌이 옥희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② 아저씨가 옥희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옥희 어머니가 외삼촌의 과거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옥희인 내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20.** [A]에 나타난 옥희 어머니의 상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재혼으로 받게 될 세상의 비판을 걱정하고 있다.
ㄴ. 재혼이 옥희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ㄷ. 재혼을 반대하는 옥희에게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
ㄹ. 아저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옥희를 나무라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은 마땅히 윤 의사를 규탄하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사건을 정확히 알리는 보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 의사의 의거 활동은 우선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으며, 식민지 제도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배격돼야 할 옛날의 제도라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

(나) 윤 의사의 폭탄 ㉡투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이 같은 수많은 사실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한다. 한 사건을 정확히 보도하는 데 만약 이와 같은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회 과학적 소양과 문화적, 철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다)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보아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의미에서의 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양심적이고자 하는 언론인이 때로 ㉣형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송건호, 「신문과 진실」 -

**21.**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읽는다.
② 의견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살핀다.
③ 주장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지 파악하며 읽는다.
④ 인물 간의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다.

**22.**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문의 역사
② 윤 의사 의거의 역사적 진실
③ 신문 보도와 방송 보도의 차이점
④ 진실 보도를 위해 언론이 나아갈 길

**23.**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배격(排擊) : 남의 사상이나 의견 등을 싫어하여 물리침.
② ㉡ 투척(投擲) : 돌 따위의 물건을 힘껏 멀리 던짐.
③ ㉢ 근거(根據) : 자기의 학설이나 의견을 굳게 내세움.
④ ㉣ 형극(荊棘) : 고난이나 장애 따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무리의 등장인물들이 '오아시스 세탁소 사건 진상 규명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나온다. 자신의 몸을 붕대로 감고, 두르고, 목발을 짚는 등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세탁소 앞에 죽나와 선다. 그들 앞에 서는 두 사람, 세탁소의 주인 강태국과 그의 부인 장민숙이다.

장민숙 (남편이 말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애들 아버지에요. 이 오아시스 세탁소 사, (사장이라기 뭐해서) 주인이에요.
강태국 으흠, 저…….
장민숙 (답답하여) 어디 일 저지를 사람으로 보여요?
강태국 (괜한 기침) 어험.
장민숙 (또 기다리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강태국 (뭔가 말하려) 함…….
장민숙 (어쩔 수 없다는 듯) 저 오아시스 세탁소만 저 자리에서 30년이에요. 그것도 아버님 대를 이어서 하니까 아버님 대까지 치면 반백 년인데 그게 인간성이 나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속이 붙어서) 아니, 동네 사람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다 안다니까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 신세 안 지고 산 사람 없고…….
강태국 (자기도 말하게 하라고 헛기침) 컹컹.
장민숙 (강태국의 이야기를 들은 척 만 척) 평생 딴눈 한 번 안 주고 죽으나 사나 딴 자리로 어디 왼짝 발끝도 한번 안 움직였어요. 어찌나 세탁 일에 일구월심(日久月深)인지 빨래로 박사 준다면 이 사람이 빨래 박사예요. 진짜 빨래 귀신이 따로 없는 게 그냥 옷만 보고도 그 사람을 다 알아 버린다니까요. 정말로 그럴 사람이 진짜 아닌데 그날은 그랬어요. 정말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미친 줄 알았어요. (관객에게) 미쳐서 한 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김정숙,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

**24.** 위와 같은 희곡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대본이다.
② 대사와 지시문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③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는다.

**25.** '장민숙'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①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한다.
② 사람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감한다.
③ 사람들이 남편을 오해해서 답답해한다.
④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